

## 불길 잡힌 금호타이어, 주민보상·고용안정 ‘첩첩’

나흘간 분진 등 피해신고 1,582건  
 노조 “2500여 노동자 생계 최악”  
 “정부·지자체·기업 신속 대책을”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로 지역사회 곳곳에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다. 사고 수습을 위해 공장 가동이 최대 3년 이상 멈출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당장 2,500여명에 이르는 노동자의 고용 불안정 문제가 최우선 과제로 떠올랐고, 매연과 분진으로 인해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들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 관련기사 6·19면  
 사고 여파가 지역 사회와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끼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하면서 정부·지자체·기업의 신속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비등하고 있다.

20일 광주시와 금호타이어 등에 따르면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 근무하는 노동자는 가능직 1,853명, 사무직 413명, 비정규직 100명, 화물 85명 등 총 2,451명이다. 화재로 인해 현재 생산직 근로자 1,853명은 유급형태로 자택 대기를 하고 있다.

광주공장은 금호타이어 연간 전체 생산량(광주·평택·곡성) 2,700만본 중 약 44%인 1,200만본을 생산하고 있고, 협력업체도 60여개에 달하는 만큼 공장 가동 중단이 장기화 될 경우 지역 경제에 큰 파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경제계와 근로자들은 화재 피해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실질적인 지원을 촉구하고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금호타이어지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광주공장의 완전한 정상화는 최소 1년 6개월에서 최장 3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며 “광주공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고용과 생계 문제는 역대 최악의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무기한 공장 가동 중단으로 인해 중소 협력업체들의 줄도산 위기를 비롯, 노동자들의 불안정한 고용으로 소비가 축소되고 이로 인한 골목상권 등의 피해는 지역경제 전체의 침체와 쇠퇴를 불러올 것이다”며 “사측은 화재원인 분석에 기초해 신속하고 안전한 공장 정상화 대책을 마련하고, 정부와 지자체는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라 고용위기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법정부적 차원의 모든 수단을 선제적으로 조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광주상공회의소도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화재로 주요 생산시설이 큰 피해를 입고 공장 가동이 전면 중단된 것은 지역경제와 산업생태계 전반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공장 중단이 장기화할 경우 협력업체와 근로자들이 고용 불안과 생계 위협에 직면할 수 있는 만큼 정부가 고용 안정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화재 분진 연기 등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인근 주민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인근 주민은 어룡동 3만3,300여명, 송정 1·2동 1만5,000여명, 도산·신흥동 1만8,000여명 등 총 6만7,000여명에 달한다. 화재가 발생한 지난 17일부터 이날 현재까지 주민 피해 신고는 총 1,582건이 접수됐다. 기관지 통증·두통·피부 발진 등 인적 피해는 790건, 분진 등으로 인한 물질 피해는 586건 등이다.

공장 재가동에 상당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광주시와 광산구는 고용위기지역·특별재난지역 지정 건의 등 피해 최소화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다만,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신청 직전 1년간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감률이 5% 이상 감소하거나 같은 기간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가 20% 이상 증가해야 하는 등 조건이 매우 까다롭다. 앞서 광주시는 2023년 법정관리를 신청한 대우위니아 사태 당시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정부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특별재난지역지역 지정 또한 ‘재난이 발생한 해당 지자체의 행정능력이나 재정능력으로 재난 수습이 곤란해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해당해 선포 요건이 제한적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재가동과 피해 복구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다양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며 “근로자 고용안정, 인근 주민 불편 최소화화 및 일상회복 등 사고 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7일 오전 7시 11분께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2공장 내 정련 공장에서 시작된 화재는 이날 오전 11시 50분께 완전 진화됐다. **길용현 기자**



20일 광주 광산구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 소방대원들이 불이 난 건물을 철거하기 위해 잔해 정리작업 중인 현장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 60주년 광주 시민의 날 ‘연대·나눔’ 되새긴다

24일 시청 일원서 축제 한마당  
 공연·물놀이 등 즐길거리 풍성

광주시가 광주 시민의 날 60주년을 맞아 오는 24일 시청 일원에서 시민이 함께 만들고 즐기는 축제 한마당을 연다. ▶ 관련기사 2면  
 올해 시민의 날 주제는 ‘광주만세’다. 기념식과 문화공연, 시민참여무대, 정책 전시, 체험 행사까지 온 가족이 하루종일 즐길 수 있는 종합축제로 운영된다.

광주시민의 날인 5월21일은 1980년 5월 시민 항거에 계엄군이 퇴각한 날을 기리기 위해 광주시가 기존 11월1일이던 시민의 날을 2010년부터 5월21일로 변경해 기념하고 있다.

올해는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주말인 24일 행사를 진행한다.

기념식은 이날 오후 6시 시청 야외음악당 본무대에서 열린다. 관악대 행진을 시작으로 광주 시민의 날 60년 회고 영상, 시장 기념사, 내빈 축사, 2025 시민대상 시상, 디자인비엔날레 1호 티켓 전달, 주먹밥 나눔 퍼포먼스 등이 진행된다.

올해 광주 시민대상 수상자로는 허정 에덴병원 원장이 선정됐다.

광주의 연대와 나눔의 정신을 되새기기 위한 주먹밥 나눔 퍼포먼스도 진행된다.

기념식에 앞서 오전 11시30분부터 시민과 세대가 함께하는 문화공연이 본무대에서 열린다. 이번 시민의 날이 60주년인 만큼 올해 회갑을 맞은 1966년생 시민 10여명을 초청해 전통방식으로 생일잔치를 여는 ‘수연례’를 비롯해 7080 레트로 음악과 광주 이야기로 구성된 ‘광주의 노래’, 조선대 태권도 뮤지컬, 정책 골든

벨, 꿈의 오케스트라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시청 앞 도로는 차없는 거리로 운영되고 그 공간에 지난해 큰 인기를 모았던 워터월드가 설치된다.

오후 7시부터는 광주 5개 자치구 대표 20개 팀이 참여하는 장기지랑 본선 ‘싱투게더 광주 시즌2’가 열린다.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이 무대는 자치구별 예선을 통해 선발된 시민 재주꾼들이 무대에서 끼와 열정을 뽐내고, 초대 가수 김연자의 축하공연으로 축제의 분위기를 더한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주 시민의 날 60주년을 우리 모두가 함께 일군 광주의 역사이자 앞으로 60년을 함께 꿈꾸는 출발점이다”며 “이번 축제가 시민 모두가 주인공이 돼 광장의 기쁨을 나누는 특별한 하루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승환 기자**

## 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

“도민 모두가 행복한 전남을 위해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돌봄을 실현하겠습니다”

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

### 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이 하는 일

- 전남형 생애주기별 통합돌봄서비스 “**종합돌봄센터**”
- 갑작스런 돌봄공백을 해소하는 “**긴급돌봄전화(☎1522-0365)**”
- 농·산·어촌을 찾아 의료·복지·생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전남행복버스**”
- 사회공헌 및 나눔문화 활성화를 위한 “**사회공헌물류센터**”
- 독거노인·장애인의 응급상황 안전대책 통합서비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업무공백을 해소하는 “**대체인력지원사업**”
-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지원하는 “**찾아가는 맞춤형 경영컨설팅**”

- 일상생활이 어려운 취약노인을 돕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 도서지역 복지 격차를 해소하는 맞춤형 지원 “**섬·섬 프로젝트**”
- 시를 활용한 스마트 돌봄체계 구축 “**스마트빌리지**”
- 도민 맞춤형 “**복지정책 연구개발**”
-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을 돕는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1899-1110)**”